

정태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장

자생수목의 활용현황과 개발방향

생태조사

조경수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자생지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종별로 자생지가 산재한 가운데 자세하게 수시로 관찰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전주수목원에서 보유중인 자생수의 생태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생태조사를 '9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잎, 꽃, 열매부분으로 나누어 일부분은 開芽, 開葉, 滿開, 葉色, 發現, 着色, 落葉, 色으로 조사하며 꽃은 花芽形成, 開花, 滿開, 落花의 日字, 花色 조사와 열매부분은 形成, 成熟, 着色, 完熟, 落果, 日字 조사와 열매색깔 조사하여 전주지방에서의 수종별 생태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시험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목본류 및 초본류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경수 시험연구 과제로 채택하여 '조

경수 파종육묘 시험'과 '성장을 조사' 등을 거쳐 자생수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파종육묘시험을 위하여 조경수의 1당 종자입수(粒數)를 조사해 본 결과 일제 때 편찬된 선만임업 편람에는 조림용수종 중심으로 조사 수록되었고 그 중 현재 조경수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나무, 주목, 소나무, 곰솔, 잣나무, 가문비나무, 젓나무, 측백나무, 가래나무, 호도나무, 박달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 벚

나무, 싸리나무, 아카시나무, 회양목, 붉나무, 무궁화, 물푸레나무, 개나리, 후박나무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조경수 생산자는 최근에 사용되거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수종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개인적 자료나 유사수종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애로가 많고 비목나무, 때죽나무 등 일부 수종별로 학위과정에서 전문연구를 통한 자료가 보고되고 있다. 전주수목원에서는 조경수 파종육묘시험시 조사된 자

전주수목원 자생수 개발현황

| 년도 | 주요 개발수종 |
|---------|---|
| '73-'75 | 은행나무, 회양목, 조팝나무 |
| '76-'80 | 회화나무, 쉬나무, 자귀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꽁꽁나무, 개나리 |
| '81-'85 | 주목, 벚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동백나무, 병꽃나무, 촘작살나무, 말발도리, 회살나무, 흰말채 |
| '86-'90 | 상수리, 팥배나무, 붉나무, 가증나무, 가는잎조팝나무 |
| '91-'95 | 곰솔, 대나무, 때죽나무, 자작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산딸나무, 물푸레나무, 빈도리, 개쉬땅나무 |

주요개발 가능수종 1당 종자입수

| 수 종 | 1당 종자입수 | 수 종 | 1당 종자입수 |
|-------|---------|----------|-----------|
| 덜꿩나무 | 32,200 | 회화나무 | 5,600 |
| 노각나무 | 35,300 | 별목련 | 5,100 |
| 모감주나무 | 4,200 | 별당나무 | 45,300 |
| 이팝나무 | 1,550 | 까마귀밥여름나무 | 44,500 |
| 화살나무 | 37,200 | 털야광나무 | 45,670 |
| 때죽나무 | 1,590 | 참가시나무 | 800 |
| 마가목 | 123,500 | 개쉬땅나무 | 2,163,500 |
| 팥배나무 | 77,800 | 단풍나무 | 2,570 |
| 장구밥나무 | 11,100 | 산사나무 | 10,500 |
| 팽나무 | 12,380 | 병아리꽃나무 | 5,500 |
| 비목나무 | 8,920 | 광나무 | 4,800 |

생조경수의 종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 주요수종은 덜꿩나무, 노각나무,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화살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팥배나무, 장구밥나무, 팽나무, 비목나무, 회화나무, 별목련, 별당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털야광나무, 참가시나무, 개쉬땅나무, 단풍나무, 산사나무, 병아리꽃나무, 광나무 등으로 1당 종자입수는 다음과 같다.

실용화 가능 수종

'88년부터 '95년까지 시험연구 결과 파종당년 발아시험수종과 개발이 유망하나 알려지지 않은 자생수종의 실용화 가능수종은

-발아율 80%이상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수종

때죽나무, 모감주, 좀작살나무, 대패집나무(2년 발아), 서어나무, 느티나무, 좀쇠물풀레, 예덕나무, 물풀레나무, 팽나무, 유동, 산황나무, 종가시나무, 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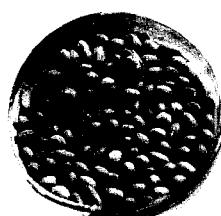
무, 가중나무, 함박꽃나무, 고광나무, 졸가시나무, 윤노리나무, 비목나무, 흰말채나무, 소사나무, 참가시나무, 쉬나무, 이나무, 고추나무, 단풍나무, 팥배나무, 천선과나무, 덤불조팝나무, 병아리꽃나무, 별목련, 개쉬땅나무, 등근참느릅나무, 히어리, 검양옻나무, 귀룽나무, 거제수나무, 누리장나무, 갈참나무.

-발아율은 낮으나(30~50%) 파종량을 높이면 실용화 가능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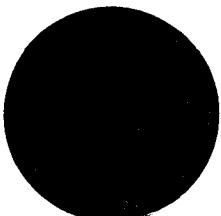
사람주나무, 털야광나무, 느릅나무, 백랑금, 민산초나무, 상수리나무, 개암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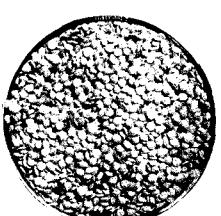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조경식물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그 많은 종류들의 조경식물 중 우리의 조경공간에 적합하고 친근감이 있는 소재들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주변의 산야에서 자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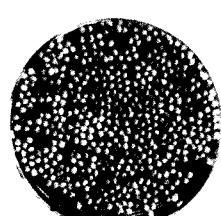
◀ 때죽나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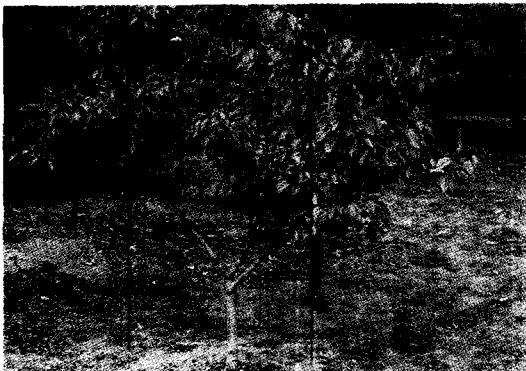
◀ 황벽나무
열매



◀ 덜꿩나무
열매



◀ 고추나무
열매



◀ 장구밥나무
열매결실과정



▶ 팥배나무
성장광경 (8년생)

다. 이렇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조경수목이 개발되어져 우리의 생활주변에 친숙한 식물소재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공동인식 하 개발

조경수의 개발은 생산, 설계, 시공빌주자의 공동인식하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 지금가지의 생산자에게만 개발하라고 요구하며 설계, 시공자는 한발 물러서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기 위하여는 조경관련학회, 세미나, 친선 모임에서도 전문분야별 Workshop이 아닌 관련분야(예를 들면 설계관련 세미나에 생산, 시공관계자참가) 전문가도 참여시켜 관심과 노력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전문연구기관 육성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임업 관련 연구가 주인데 조림수목에 부가적으로 조경수를 연구하며 대학의 조경연구기관도 역사가 짧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며 조경건설업체도 공사수주, 시공에 필요한 농장확보에 대량소요 수종 등 일반 조경수 식재중심이고 몇몇회사에서 부분적으로 관심있는 자생수를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개발하거나 최근에는 자생초화류재배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다. 조경

부분의 시험연구사업도 전문인력 을 확보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경수협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기개발된 자생수종을 선발 육성

조경용수로 개발가능한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노력 못지않게 자생수로 개발된 수종의 우량 종과 조경적 특성(직립형, 능수형, 교목성을 관목성, 잎이나 꽃의 색깔이 독특한 것 등)에 따라 선발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 있는

개나리-황금개나리
때죽나무-왜성, 직립형,

교목성

사철나무-교목성

회양목-겨울철 녹색잎 유지
(한림회양목)

잣나무-능수형

무궁화-직립성

뜰보리수-직립성

팥배나무-능수형

등과 같은 수종별로 고유한 성상과는 다른 선발 육종할 가치가 있는 자생수의 보급도 활발히 이루어져야겠다.

□ 참고문헌

1. 조경수목학 (문문당)
2. 조경실무 ('91. 한국도로공사)
3. 전주수목원 시험연구 보고서 ('95.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4. 조경공사의 조경수목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86. 이동철)
5. 식물원 협회소식 제4호 ('95. 12. 식물원협회)
6. 가격정보지 ('79-'95. 조달청)
7. 물가자료 ('80-'95. 한국물가협회)